5월 단체 통합 급물살

30주년 앞두고 공법단체 설립 박차

"내년 상반기 마무리"

5월 관련 단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분열양상을 보여왔던 5월 관련단체들이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공법단체 전환 논의를 재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다.

10일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관련 3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근 5·18 30주년을 앞두고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법단체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 관련단체는 이달 안으로 각 단체 사무총장과 회장단 회의를 잇따라 연 뒤 '5·18 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소집, 공법단체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현재 통추위는 간사 1명을 포함한 각 단체별로 4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5·18 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은 "각 단체별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긴 곤란하지만, 통합작업은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반복과 갈등 관계를 접고 서로 양보해 광주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내보이겠다"고 말했다.

(사)5·18 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회원 모두가 하나의 통합단체로 가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각 단체들이 서로 공법단체 전환 논의를 재추진키로 뜻을 한데 모은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추위는 지난해 12월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 대동 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나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5월 관련단체 간 분열양상을 보이면서 통합 논의가 한때 중단됐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고위험 줄고 환경도 보호

⑮ 에코 드라이브

정속 운전습관 생활화

기름값 30%까지 절약

교통사고 예방효과 커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이모(38·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급정거·급출발 등 난폭운전을 피하고 정속주행을 생활화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운전습관이 유류비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난 뒤였다. 처음 한 달은 무척 힘들었지만 생활화한 지 두 달 만에 유류비를 10%가량(10만원 가량) 줄였다.

이씨는 "지금은 한 달 평균 15만~20만원 가량 유류비를 절약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피하면서 덩달아 사고 위험도 전에 비해 훨씬 줄었다. 안전운전을 하다 보니 승객들도 좋아한다"면서 "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운전방법을 따라하는 동료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휘발유·경유값이 ℓ당 1천700원·1천400원을 넘어서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운전습관인 '에코 드라이브'(Eco Drive)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급정거·급출발 등 난폭운전을 피하고 정속주행을 생활화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에코 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에코 드라이브'가 일반주행에 비해 10~30%가량 기름값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운전법인 '에코 드라이브'는 급출발 급제동 등 급가속 금지, 관성을 이용한 정속주행, 적정타이어 공기압 유지,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 줄이기,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등을 생활화하는 운전법이다.

화물차 운전 경력 8년차인 오정근(41)씨가 지난해 5월 2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까지 335㎞를 4.5t 화물차로 평소 운전법과 에코 드라이브로 시운전한 결과, 각각 61.9ℓ와 53.25ℓ의 기름이 소모됐다. 평소 운전습관대로 했을 때 소비된 61.8ℓ보다 연료 8.55ℓ(16.0%)가 절약된 것이다.

물론 시간은 에코 드라이브식 운전이 15분 정도 더 걸렸다. 오씨는 "운전습관에 따라 연료 소비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정속주행을 해 보니 앞차 간 거리도 자동으로 유지되면서 사고 위험도 줄었다. 돈도 벌고 사고 위험도 동시에 줄이는 훌륭한 운전법"이라고 말했다.

에코 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에코 드라이브는 기름값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배기가스도 덜 배출하는 친환경적 운전 방식"이라며 "운전습관을 조금만 교정하면 절약한 기름만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후원 :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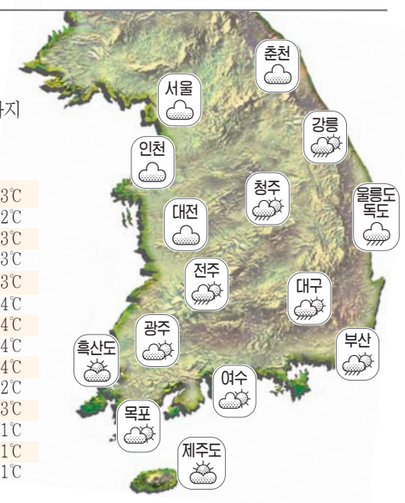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0분 해짐 17시 21분 / 달뜸 02시 10분 달짐 13시 33분

고개 내민 햇님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다.

광 주	흐린 뒤 맑음	8/13℃
목 포	흐린 뒤 맑음	8/12℃
여 수	흐린 뒤 맑음	8/13℃
완 도	흐린 뒤 맑음	8/13℃
구 례	흐 림	7/13℃
해 남	흐린 뒤 맑음	8/14℃
장 흥	흐린 뒤 맑음	8/14℃
고 흥	흐린 뒤 맑음	7/14℃
순 천	흐린 뒤 맑음	8/14℃
영 광	흐린 뒤 맑음	6/12℃
진 도	흐린 뒤 맑음	8/13℃
전 주	비온 뒤 갬	7/11℃
남 원	비온 뒤 갬	5/11℃
흑산도	구름 많음	9/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먼바다	북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2.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밀물	썰물
목포	09:48 21:59	02:08 15:09
여수	05:06 17:05	11:02 23: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최저/최고	5/11	1/8	1/7	0/5	-1/5	-2/4

5·18 30주년 준비위 발족

함세웅·정동년 상임위원장 추대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오는 17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10일 준비위에 따르면 최근 열린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 회의에서 함세웅(6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1980년 5월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정동년(66) 전 광주 남구청장을 공동 상임위원장에 추대했다.

기획단장은 허달용(47)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이 맡게 됐다. 준비위원장에는 노동·교육·시민·종교·예술·진보·농민 등 각계각층 대표 20명이 위촉됐으며, 조만간 10여명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내년 초 '5·18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때까지 5·18 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맡게 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대 총장 선거전 돌입…5명 각축

국립 목포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가 10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목포대에 따르면 제6대 총장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는 교내 박물관 대강당에서의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입후보자는 박민서(사회복지학), 고석규(역사학), 허석(일어일문), 송재준(환경공학), 최일(건축학) 교수 등 모두 5명이다.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약학대, 의과대 유치', '교육중심 대학', '국제교류 강화로 글로벌 특성화 대학 실현',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거점 대학 완성' '목포대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공약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했다.

투표는 오는 16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3명을 놓고 2차 투표가 실시되고 여기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를 놓고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유권자는 교수와 직원 등 모두 454명(교원 301명, 직원 153명)이며, 신임 총장 임기는 내년 3월부터 4년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북구, 2년 연속 최우수

2009 여성정책 종합평가

광주시 북구는 최근 광주시 주관으로 실시된 '2009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전문 여성동아리, 동네 한 바퀴 주부 순찰단, 주부명예기자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기회를 확대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기인사시 여성 공무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환경미화원 채용시 성차별을 없애는 등 여성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구는 지난 7월 초 여성부 주관으로 열린 여성정책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